

장흥 정남진농협 '종합복지센터' 건립 논란

장흥 '정남진농협'이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농용자재 백화점 등을 갖춘 대규모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남진농협은 2011년까지 자체기금 32억원과 출자금 15억원, 적립금 12억원, 중앙회 무이자 및 시설지원금 38억원 등 97억원을 들여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남진농협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종합복지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또 영농이장단과 부녀회원, 독농가, 지역상가대표 등 21명이 참여하

농협 "현 건물 노후...하나로마트·주유소도 필요" "대규모 투자 효율성 없고 영세상인 피해" 반발도

는 '종합복지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건립작업에 착수했다. 정남진농협측은 대규모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향후 '1사·군 1회원농협' 체제에 대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1970년에 건립된 현 농협본점 건물이 비좁고 낡은데다 번두리 사각

지대에 위치해 있고 하나로마트와 주유소가 있는 타 지역에 비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도 종합복지센터 건립의 명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장흥지역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유가 폭등에 농산물 개방 등으로 지역경기가 날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

대한 예산을 고정자산 신축에 과다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백화점적인 하나로마트가 들어서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마트와 식료품 가게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장흥군도 자체재원을 마련 신청사를 건립하려던 당초 계획을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과 군의회 의견에 따라 백지화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힌빔 검둥오리의 먹이사냥 이모작으로 모를 늦게 심은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힌빔 검둥오리' 30여마리가 찾아와 먹이사냥에 여념이 없다. 이 새는 몸길이가 60여cm로 잡초와 해충을 먹여치워 농민들의 일손을 덜고 있다. <함평군 제공>

농촌공 전남본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성료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일 본부 1층 광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사진>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나주 배즙, 화산 파프리카, 고흥 마늘, 장성 방울토마토 등 25개 품목이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됐으며 직원과 주민 등 100여명이 2천29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했다. 김형선 지역개발팀장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장성 국민임대주택 조기 완공 나선다

연내 착공 2011년 준공

장성군 장성읍에 추진중인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공된다. 장성군은 대한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당초 보다 1년여 앞당겨 연내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에 착수기로 했다. 이는 동화전자공단지외 나노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촉진지구 사업 본격화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조기 착공으로 당초 2012년 준공 예정이었던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은 1년 빠른 2011년께 준공돼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은 지난해 6월 건교부 국민임대 주택건설지원단의 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됐으며 412억원을 들여 2만185㎡ 부지에 45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후보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변 SOC 확충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완도군수협 통·폐합 반발 확산

500여명 상경 시위...수협살리기 운동 발대식도

완도군 수협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지역 주민들이 상경시위를 벌였다. 완도수협 임직원과 완도군 번영회(회장 김용일), 어민 대표 등 500여명은 23일 새벽 상경해 과천 정부 종합청사와 수협 중앙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김중식 완도군수와 김영록 국회의원도 완도군 수협에 대한 구조조정을 오는 2009년 말까지 늦춰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또 완도군번영회가 수협살리기 운

동 발대식을 갖는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반발이 범군민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완도군 수협은 지난 1995년 부실조합으로 관정돼 그동안 정부와 조합원 등에 의해 임명된 임원진 12명이 운명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완도군 수협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대표관리자와 부대표, 직원 등 7명을 파견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실경영을 이유로 완도수협 계약분을 올해 안에 끝낼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또 완도군번영회가 수협살리기 운

이에 대해 수협 임직원들과 조합원들은 절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20여 일간 실력행사로 맞서고 있다. 조합원들은 "과거 부정비리로 구속된 조합장 2명의 부실경영과 정부가 개인회생제도 등을 양성화해 농·어민들이 돈을 빌려쓰고도 고의 부도를 내 고스란히 수협이 피해를 입었다"며 "중앙정부도 큰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공직자금 투입이 종료되는 오는 2009년 12월까지 현 체제대로 수협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완도군 수협은 조합원 수가 1만250여명으로 단일 수협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한·중·일 '토지법 전문가' 한자리에

도립대 개교 10주년 학술대회 전남도립대학(학장 노옥섭)이 개교 10주년을 맞아 한·중·일 토지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26일 전남도립대 본부 동 강당에서 열리며 한미 FTA 문제와 부동산 개발 등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측에서는 서남정법대 레우 준

(劉俊)부총장 등 6명, 일본측에서는 와세다대 오우미 고치(近江幸治)교수 등 2명, 한국측에서는 전남도립대 이재진 교수 등 4명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인다. 전남도립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대학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대학으로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열린 대학으로 지역발전과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심청상품권' 곡성 경제 효녀

가맹점 확대·단체 구매 늘여 올 상반기 20억여원치 팔려

곡성군이 발행하는 '심청상품권' <사진>이 올 상반기에만 20억원이 넘게 팔려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은 올해 초 28억5천만원의 심청상품권을 발행, 이달 중순까지 20억5천만원 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품권 판매가 호조를 보인 이유는 기관과 사회단체들

의 구매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위·변조 방지 등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가맹점 수를 음식점·마트·재래시장 등 504개소로 확대한 것도 판매호조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무안군 '한·중 국제산단' 승인 신청서 제출

자본금 1천100억 확보...내년 하반기 부지 조성 착수

무안군이 23일 무안 기업도시 내 한·중 국제산단단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정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업도시 부지 조성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 기업도시는 2006년 기업도시 내 국내산단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냈으며 이번 승인신청은 기업도

시 내 한·중 국제산단단지 대한 개발계획 승인신청이다. 한·중 국제산단단지는 법정자본금 1천528억원 중 이달 초 1천100억원을 확보해 이번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그동안 무안군은 무안기업도시의 성패가 중국자본 유치에 있다고 보고 2005년 12월 한·중 국제산단단지 개발을 설립해 2007년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한중국제산단

단지 개발사업 투자 승인을 받았다. 이후 중국 상무부로부터 해외경제무역협약구로 지정받아 중국정부가 공식 인정한 국제산단단지를 세우게 됐으며 출자기업에는 중국의 광학그룹과 지산그룹, 한국의 두산중공업, 벽산건설, 농협중앙회,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중 국제산단단지는 2012년까지 무안군 일대 17.7km 부지에 1조5천280억원을 들여 인구 7만1천600명 규모로 차이나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중국 산동성 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무안=대성기자 dss@

자연 愛 !! 살고싶다

오랜 기다림의 행복!!

'담양수북' 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 맑은 물이 흐르는 강변
- 넓은, 맑은, 정수처리 2차~3차된 호수
- 한적하고 잘 보살펴주는 전원생활 경험
- 편리한 시설,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 - 전통무늬, 세련된 인테리어
- - 친환경적 친환경 주택
- - 1100㎡ 20억대 전원주택 100여채
- - 분양가 1억 1천~1억 2천대 (매출가 1.5~1.8억)

● 문의처 : 담양수북 (주) 061-251-4000 / 061-383-2346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는 2008년 7월 24일 목요일에 1000명 이상의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는 2008년 7월 24일 목요일에 1000명 이상의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는 2008년 7월 24일 목요일에 1000명 이상의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는 2008년 7월 24일 목요일에 1000명 이상의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는 2008년 7월 24일 목요일에 1000명 이상의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는 2008년 7월 24일 목요일에 1000명 이상의 새가족을 모십니다.